

<번역>

王毛仲과 唐玄宗 政權*

왕 위엔 쥘 저

우페이페이(吳佩佩)** 역

<목차>

- I. 奴僕에서 대장군에 이르다
- II. 권세를 떨친 이후의 잠재적 위기
- III. 최후의 대결

官奴의 아들에서 “百官으로 의부하는 자가 물려든” 大將軍에 이르고 “천자가 재능을 인정하여” 開府儀同三司를 더해주었으나 좌천[貶逐]되어 縊殺된 왕모중의 일생은 극적인 변화가 풍부하고 당현종 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 이 글은 王元軍, 『王毛仲與唐玄宗政權』, 『文史知識』 1993-5를 번역한 것이다.

** 東國大學校 史學科 博士課程 修了

I. 奴僕에서 대장군에 이른다

왕모중은 高麗人이다. 그 부친은 사건에 연루되어 官府에 몰수되었고 왕모중은 臨淄王 李隆基의 노복이 되었다. 그 “성정이 총명하고 잘 깨달았으며”(『구당서』 권106, 왕모중전, 3252쪽. 이하 이 열전을 인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날래고 용감하며 騎射에 능하였기”(『자치통감』 권209, 睿宗 景雲 원년 6월 조, 6648쪽) 때문에 “좌우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용기의 신임[喜歡]을 얻었다.

中宗 景龍 2년(708) 이용기는 장안을 떠나 潞州(지금의 山西 長治市) 別駕로 부임하였다. 이때 장안성은 한바탕의 위기에 싸여 있었다. 당시 재위 중의 唐 中宗은 昏庸하고 무능하여 妻 韋后와 딸 安樂公主가 조정 정치에 간여하고 개인적 세력을 심어두면서 武則天后와 마찬가지로 李氏를 대신하려고 하였다. 경룡 3년 이용기는 장안으로 돌아와 李唐 왕조를 존속시키려는 투쟁에 나섰다. 왕모중은 신임을 얻어 호위하며 시종하였고 李宜德 등과 함께 “弓矢를 지니고 양쪽에서 호위하였다”고 한다.

이용기는 위후와 안락공주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항상 재능과 힘을 지닌 사람들을 은밀히 끌어들이어 자신을 돕게 하였고”(『구당서』 권8, 현종본기상, 경룡 4년 조, 166쪽), 아울러 황제의 정예부대이자 궁성 북문을 지키는 萬騎에 특히 주목하였다. 『구당서』에 따르면 “현종은 藩邸에 있을 때 항상 호걸들과 접하고 혹 음식과 재물을 하사하니 만기가 진심으로 귀의하였다”라고 한다. 왕모중은 천성이 영민하고 이용기의 의도를 잘 이해하여 만기 將士들을 “매우 정성을 다해 대우하며”(『구당서』 왕모중전, 3252쪽) “정성을 다해 그들과 교분을 맺었다”(『신당서』 권121, 왕모중전, 4335쪽)고 한다. 이로 인해 이용기는 “그의 민첩하고 지혜로운 면모를 더욱 아꼈다”라고 한다.

이용기와 왕모중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위후가 증중을 독살하고 권력을 장악하여 측근 “韋播, 高嵩을 羽林將軍으로 임명하여 만기를 관장하게 하니 가혹하고 엄하게 위엄을 세웠는데”(『신당서』 왕모중전, 4335쪽), “[萬騎]果毅 葛福順과 陳玄禮가 王에게 호소했다”(上同)고 한다. 이용기는 이미 행동을 결심하고 심복 劉幽求에게 갈복순과 진현례를 설득하게 하니 “만기 장사들이 모두 목숨을 바치길 원하였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후·안락공주 및 위파 등이 주살되었다.

이번 정변은 이용기가 세력을 키우고 황위에 오르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 사건인데, 만기가 그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는 “정성을 다해 그들과 교분을 맺었던”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용기와 만기 사이의 연결은 주로 왕모중이 맡았다. 따라서 비록 정변 과정에서 “왕모중은 이를 피해 들어가지 않았고”, 정변 후 “머칠 만에 돌아왔다”고 해도 “현종이 질책하지 않고 파격적으로 장군으로 삼았던”(『구당서』 왕모중전, 3253쪽) 것이다.

위후와 안락공주가 주살된 후 相王(이용기의 부친) 李杲이 복위하였는데, 곧 睿宗이다. 이용기는 平王에 봉해지며 內外閑廐를 겸하고 左右廂萬騎를 지휘하여 금군과 御馬를 관장하였으며 곧이어 황태자로 책립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左右萬騎·左右營은 龍武軍으로 개편되어 左右羽林과 함께 北門四軍이 되었으며, 갈복순이 장군으로 임명되어 이를 지휘하였다. 그리고 왕모중은 태자 동궁의 낙타·말·매·개 등의 坊을 전담하였는데,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아 “1년이 지나지 않아 대장군에 이르니 관계가 3품이었다”라고 한다.

이용기는 황태자가 된 후 太平公主와 침예한 갈등을 겪었다. 공주는 위후 세력을 주살하고 예종을 옹립할 때 큰 공을 세워서 지위가 날로 높아졌고 교만하게 행동하여 “貴하고 성대함이 비할 데 없었다”(『구당서』 권 133, 태평공주전, 唐隆 원년 6월 조, 4739쪽)고 한다. 그녀는 태자를 바꾸

고 자신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용기는 오히려 곧 황태자에서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에 태평공주는 재상 중 자신의 당파와 함께 정변을 도모하여 현종 이용기를 폐위시키려고 하였으나 계획이 누설되었고, 현종은 즉시 심복들과 상의하여 선수를 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 龍武將軍 왕모중이 있었다. 先天 2년(713) 7월 3일 왕모중이 3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羽林軍을 장악한 후 공주의 잔당을 수색하여 재상 蕭至忠과 岑羲를 살해하였으며 竇懷貞은 자살하고 태평공주는 자택에서 賜死되었다. 이때 우림군을 장악하는 것은 태평공주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었다. 왕모중은 큰 공을 세워 左武衛大將軍에 임명되고 霍國公으로 진봉되었으며 후에 開府儀同三司로 승진하였다.

왕모중이 빠르게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文武 능력과 뛰어난 관리 능력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역할과 재능이 현종 정권의 성장과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옛 왕권에서 새로운 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왕모중은 새로운 왕권을 위해 정성으로 목숨을 걸었고, 새로운 왕권의 지위가 점차 확립된 후에는 왕모중의 세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왕권에서 크게 중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II. 권세를 떨친 이후의 잠재적 위기

이용기가 위후와 안락공주 및 태평공주를 주살하는 과정에서 왕모중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태평공주 무리를 주멸하여 현종 정권의 확립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세력을 제거하는 공을 세움으로

써 현종의 신임을 받아 “唐元功臣”¹⁾의 반열에 올랐다. 그 후 “왕모중은 奉公·正直하고 權貴를 피하지 않았으므로 두 췌의 만기 공신과 한구의 관리들이 모두 그 위세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였다. 금원에서 황무지[草萊]를 개간하여[營田] 항상 수확하였는데, 모두 풍족하고 넘쳤으므로 현종이 재능 있다고 여겼다”(『구당서』 왕모중전, 3253쪽)라고 한다. 또 황제가 연회를 베풀고 상을 내릴 때마다 왕모중은 “諸王과 姜皎 등과 함께 황제의 휘장[御幄] 앞에서 탐상[榻]을 이어서 앉았다. 현종은 왕모중이 보이지 않기라도 하면 무엇을 잃은 듯 망연해하다가 왕모중이 나타나면 기뻐서 밤을 함께 보내며 잠들곤 하였다”(『구당서』 왕모중전, 3253쪽)라고 한다. 그의 妻는 이미 ‘邑號 國夫人’이 되었는데, 현종은 다시 이씨 성을 하사하여 그대로 국부인으로 삼았다. 왕모중이 말을 기르는 데 공을 세웠으므로 현종은 왕모중에게 開府儀同三司를 제수하였다. 현종이 즉위한 이후 15년 간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은 모두 4인이었는데, 즉 왕모중을 포함하여 현종 황후의 부친인 王同(仁?)皎²⁾와 두 명의 뛰어난 재상인 姚崇·宋璟이었다.

왕모중은 뜻을 이룬 후 교만해졌다. 그는 높은 官秩에 올랐음에도 현종에게 병부상서 직책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현종과 왕모중 사이에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개원 17년(729년) 이전에 왕모중은 계속해서 공로를 인정받아 작위가 상승하며 후한 대우를 받았다. 그는 만기를 관리하는 갈복순의 아들에게 딸을 시집보내 인척관계를 맺은 후 세력이 더욱 공고해졌고 서로 의지하면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馬騎將軍 馬崇이 대낮에 사람을

1) [역자주] 林美希, 「左右龍武軍の盛衰 - 唐元功臣とその後の禁軍」, 『唐代前期北衙禁軍研究』, 147~150쪽 등 참조.

2) [역자주] 王同皎는 王仁皎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왕인교에 관해서는 任士英 저, 류준형 역, 『황제들의 당제국사』, 푸른역사, 2016, 165쪽 등 참조.

죽었으나” 왕모중은 자신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감싸려 하였고 이로 인해 裴寬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³⁾ 그리고 吏部侍郎 齊漸은 현종에게 말하길 “갈복순이 禁兵을 관장하는데, 왕모중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왕모중은 小人으로 총애가 지나치면 간사한 마음이 생길 것이니 일찍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후환이 생길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현종은 “짐이 천천히 그 마땅함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한이 궁중에서의 간언 내용을 大理丞 麻察에게 누설하자 현종이 이를 알고서 제서를 내려 말하길 “제한과 마찰이 將相과 결탁하여 君臣을 이간한다”라고 하고 제한을 高州 良德丞으로 좌천시켰다(『자치통감』 권213, 개원 17년 6월 및 7월조, 6785~6786쪽). 이는 당시 현종이 왕모중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개원 18년(730년) 왕모중이 현종에게 병부상서를 요구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자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말과 얼굴빛에 나타났으며” 현종은 그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 이때 마침 환관 高力士가 왕모중을 탄핵하여 현종을 “놀라고 두렵게” 만들었다.

개원 18년 말 왕모중의 아들이 태어난 지 ‘3일’이 되자 현종은 왕모중에게 많은 재화와 술·음식을 하사하며 고력사를 시켜 전달하게 하고 갓 태어난 아들에게 5품 관직을 수여하였다. 고력사는 궁으로 돌아온 후 현종에게 “왕모중이 포대기에 싸인 아들을 안고 신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삼품에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당시 황제가 총애하는 환관은 종종 3품 장군에 임명되었으며, 고력사도 바로 3품 관직을 수여받았다.⁴⁾ 왕모중은 환관들을 극도로 무시하였으며, 그가 고력사에게 한 말은 단지 “내 아들이 너와 같은 환관보다 못하겠느냐”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

3) [역자주] 『구당서』 권100, 裴寬傳, 3130쪽.

4) [역자주] 『자치통감』 권213, 개원 18년 11월 조, 6792~6793쪽.

을 뿐이며 아이를 내세워 현종에게 불만을 표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현종은 고력사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며 “예전에 위씨를 주살할 때 이 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짐은 이를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어찌 감히 어린아이를 들어 나를 원망하느냐”고 말하였다(『자치통감』 권213, 개원 18년 11월 조, 6793쪽), 이러한 상황에서 고력사는 기회를 틈타 “北門의 奴官은 모두 왕모중과 잘 지내는 사이여서 제거하지 않으면 필히 큰 화란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신당서』 왕모중전, 4336쪽). 이 말은 현종의 마음을 자극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종은 왕모중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⁵⁾

III. 최후의 대결

고력사가 기회를 틈타 현종이 왕모중을 제거할 결심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이미 왕모중과 환관들 사이에 목숨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고력사와 왕모중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환관과 조정 대신 간의 권력 다툼으로 보지만, 사실 이는 적절하지 않다.

고력사는 중종 경릉 연간에 당시 임치왕이었던 현종 門下에 있었다. 그는 황제에게 “충절을 다하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였고”(『高力士外傳』), 게다가 그의 태도는 겸손하고 일처리가 신중하며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현종의 인정을 받았다. 위후와 태평공주를 제거하는 궁중투쟁에서 그는 또

5) [역자주] 『자치통감』 권213, 개원 18년 11월 조, “[高]力士因言, ‘北門奴, 官太盛. [胡三省注: 王毛仲·李守德皆帝奴也, 又葛福順等皆出於萬騎. 中宗以戶奴補萬騎, 故云然] 相與一心, 不早除之, 必生大患, 上恐其黨驚懼為變’(6793쪽).

다른 환관 楊思勳과 함께 큰 공을 세워 현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의 권세도 성대하여 外朝의 왕모중에 못지않았다.

왕모중의 세력이 발전하고 커지면서 조정 대신들의 의심과 불만을 샀을 뿐만 아니라 고력사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두 세력이 충돌했을 때 고력사는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물론 여기에는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원한도 배제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왕모중은 “품계가 높은 환관을 보면 멸시하듯이 바라보고, 품계가 낮은 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뜻을 거스르면 자신의 노복처럼 모욕을 주었고”, 고력사 무리의 원한이 골수에 스미게 되었다(『구당서』 왕모중전, 3254쪽). “환관 등은 그 위세의 왕성함이 자신들을 넘는다고 질투하여 오로지 그 죄를 찾아내는 데 힘썼으나, [왕모중은]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다”(상동)라고 한다.

이때 고력사 등 환관들은 아직 집단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왕모중과의 투쟁은 여전히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당현종 정권이 그들의 버팀목이자 그들의 높은 지위와 많은 녹봉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고력사는 현종에게 충성을 다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모중과 전면적으로 맞섰던 것이다.

또한 제한의 상소에서 배관의 왕모중에 대한 불만의 토로는 왕모중과 대신들이 이미 정면으로 충돌한 것을 말한다. 이때 少尹 嚴挺之의 密奏는 결정적으로 현종에게 왕모중에 대한 최후의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왕모중이 殿中監으로 있을 때, “太原·朔方·幽州에 使로 나가 兵馬를 조율[計會]하게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태원에 牒을 보내 器仗을 징발[索]하였다. [少尹] 엄정지는 거기에 勅이 없고 왕모중이 총애를 입은 지 오래되어 變故가 있을까 우려하여 몰래 상주하였다”(『구당서』 권99, 엄정지전, 3105쪽)라고 한다. 현종은 “그 무리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난을 일으킬까 우려해서 그 사실을 숨겼다가” 완곡한 표현으로 된 조서를 내렸다.

조서에서 왕모중에게 내려진 죄명은 “조금의 공헌도 없으면서 교만의 마음을 멋대로 드러낸다”, “평상시 원망의 말을 많이 한다”고 하고 “태원에서 갑옷과 무기를 요구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왕모중의 잔당이 이 소식을 듣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왕모중과 그의 잔당은 실질적으로 가장 최정에 부대인 황실 부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장안성 북문인 현무문을 지키고 있었다. 당 초에 태종에 의한 玄武門의 변 및 무측천 말년의 ‘五王’의 변이 모두 이 要地에서 발생하였으며, 태자 李重俊의 거병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도 그의 병사들이 이곳에서 저지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종은 왕모중을 즉시 처형하라는 명을 내림으로써 공연히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방비를 강화하지 않게 하였다. 병권을 쥐고 있던 갈복순, 唐地文, 李守德(즉 李宜德), 王景耀, 高廣濟, 왕모중의 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좌천된 후야야 비로소 현종은 “왕모중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고 永州에서 목을 졸라 죽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현종이 왕모중을 처리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존재하는 허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조서는 왕모중의 모든 공로를 지우고 그에게 “평상시 원망의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매우 억지스러운 죄명을 붙였다. 이는 왕모중이 태원에 대해 갑옷과 무기를 요구한 것이 반란을 준비한 것이라는 엄정지의 주관적 추측일 뿐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왕모중이 죽음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그가 병권을 장악하고 오만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대신들의 탄핵을 받고 환관들의 모함을 받아 결국 황제의 의심을 사서 억지로 죄명이 씌워져 제거되었던 것이다.

